

[AH-01] 개화기 천문학 서적 연구 : 정영택의 『天文學』과 W. M. Baird의
『턴문략해』

박은미, 이용삼
충북대학교 천문우주학과

개화기 말에 서양과학지식을 수용한 다수의 과학 서적이 발행되었다. 1908년 보성관(普成館)에서 정영택(鄭永澤)의 『天文學』이 국한문혼용으로 출간되었다. 이 서적은 요코야마 마타지로(横山又次郎)의 『천문강화(天文講話)』(와세다대학 출판부, 1902)를 번역한 것으로 사학연구인(史學研究人)에게 천체에 관한 지식을 주기 위함이라고 서문에 밝혀놓고 있다. 같은 해에 평양숭실대학에서 선교사 William Martyne Baird(한국명 배위량裴緯良)가 학생들의 도움으로 번역한 천문학 교과서 『턴문략해』가 출간되었다. 이 서적은 Joel Dorman Steele의 『Popular Astronomy』(American Book Company, New York(etc.), 1899)를 발췌·수록한 것으로 순환글로 편찬되었다. 정영택(1874~1947)은 개화기의 인물로서 본관은 영일(迎日), 자는 성장(聖章) 또는 안립(安立)이고 1888년 생원시에 급제하였다. 1895년 법관양성소를 졸업하고 1902년 해민원 주사로, 1904년 법관양성소 교관으로 서임되어 일하다가 1905년 보성전문학교가 개교함에 따라 보성전문학교 학감과 교장을 역임하면서 기호흥학회를 설립하여 왕성한 교육과 계몽 활동을 하였다. 그러나 1910년 중국으로 망명한 이후의 행적은 확실치 않다. William Martyne Baird(1862~1931)는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로서 1891년에 부산·대구 중심으로 선교 활동을 펼치다가 1897년부터 평양에 정착하여 숭실학당을 설립하였고, 1906년 한국 최초의 대학(숭실대학, Pyeng Yang Union Christian College)으로 발전시켰다. 그는 1903년 美 하노버대학(Hanover College)에서 철학박사학위, 1913년 신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꾸준히 선교와 교육에 힘쓰다 1931년 평양에 묻혔다. 이 연구를 통해 개화기 말에 발행된 정영택의 『天文學』과 W. M. Baird의 『턴문략해』에 대한 문헌조사와 서적의 내용 분석을 통해 지금의 천문학 서적과 비교하여 개화기의 천문학수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天文學』과 『턴문략해』가 출간된 이후 ‘天文學’이라는 자연과학의 학문 분야가 우리나라에 정착되었다.